

한우가 삼겹살의 반값 “FTA 두렵지 않아요”

전북 산외 한우마을

휴일 1만여명 ‘북적’

‘한우 마을’로 알려진 전북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가 ‘쇠고기’로 뜨고 있다.

‘청토우촌(青土牛村)’이란 브랜드의 고급 한우 쇠고기가 정육점과 음식점에서 삼겹살의 반값에 팔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평일 1천여명, 휴일 1만명까지 몰려 400m 길이의 평사리 ‘한우 거리’는 밟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하루 도축되는 소는 40~50마리에 달하며, 28개의 정육점과 21개의 식당이 올리는 매출도 하루 3억 원을 웃돈다. 지난 설 명절에는 하루 4억원씩 무려 한달동안이나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한미 FTA 타결과 함께 축산농가 불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지만 적어도 산외면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 산외면이 전국적인 ‘한우 마을’로 이름난 것은 ‘청토우촌’의 과격적인 가격 때문이었다. 안심·제비주리·등심·치마살 부위가 1근(600g)에 1만4천원, 불고기·국·장조림용은 1만원이다.

정읍시에서 자동차로 30여분 거리에 위치한 평사리는 2005년만 해도 외지관광객 한 명 찾아볼 수 없



한미 FTA의 파고가 물려온 4일 ‘한우 마을’로 유명한 전북 정읍시 산외면 일대 한우 음식점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는 전형적인 산간오지 마을이었다.

그러던 것이 김훈 면장과 마을사람들이 평사리를 한우고기 특화지역으로 만들자며 의기투합, 지난해 2월 자생조직인 ‘산외 한우마을’을 번영회’를 결성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한미 FTA 타결과 함께 축산농가 불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지만 적어도 산외면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 산외면이 전국적인 ‘한우 마을’로 이름난 것은 ‘청토우촌’의 과격적인 가격 때문이었다. 안심·제비주리·등심·치마살 부위가 1근(600g)에 1만4천원, 불고기·국·장조림용은 1만원이다.

정읍시에서 자동차로 30여분 거리에 위치한 평사리는 2005년만 해도 외지관광객 한 명 찾아볼 수 없

와 정육점간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업체의 중간마진을 들어냈다”면서 “특히 49개 업소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 것도 가격할인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외지인의 발걸음이 찾아들면서 당달아 다른 업종까지 재미를 보고 있다.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도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180㏊에서 연간 360t의 콩을 생산해 만들 어낸 고추장·청국장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다.

김훈 산외면장은 “한미 FTA로 미국 쇠고기가 물려와도 우리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코스피 최고치 경신

FTA타결 힘입어 1,483.41
시가 총액 800조원 시대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5주 만에 경신한 가운데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서졌다.

코스피지수는 4일 19.96포인트(1.

34%) 오른 1,483.41로 마감돼 지난 2월 26일의 종전 최고기록 1,470.03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 729조원,

코스닥시장 98조7천억원 등 총 810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모두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운 사상 최고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男, 수명 가장 짧다

사망률 전국 최고…광주 청장년층 사망원인 1위 자살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남도민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기대 수명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민의 기대수명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15~44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집계될 만큼 청·장년층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819.9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전남지역의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419.9명)를 비롯한 서울(377.2명), 울산(376.3명), 대전(396.3) 등 광역시 지역은 전국 평균 사망률(504.3명)을 밀쳤다.

전남은 또 기대수명이 77.75세로

남자 아이의 기대 수명이 73.38세로 나타나 전국 신생아 가운데 가장 기대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란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향후 생존 나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광주는 기대수명이 79.05세로, 서울(80.39세), 제주(79.3세), 대전(79.21세), 경기(79.16세) 등에 이어 전국 평균보다 약간 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또 사살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 당 20.6명으로 전국 평균(24.7명)보다 낮았다. 하지만 광주는 15~44세 인구의 사망원인 1위로 자살이 꼽혀 청·장년층 자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고, 인구 10만명당 134.5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최경호기자 choice@

한미, 6월 정상회담 추진

방미 윤병세 수석 일정·의제 조율…한반도 새 질서 구축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됐다고 판단하고 2·13 합의’ 이행을 위한 6자회담의 동력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한반도 정세 구축 작업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중국간 방코발타야시(AIBDA)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6자회담을 재개한 뒤 2·13 합의의 초기단계조치인 북한 핵시설 폐쇄를 위한 실무적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6개국 외무장관 회담도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개최하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6자 외무장관 회담 성사 이후 가급적 상반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2·13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궁극적으로 한미 정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남·북·미·중 4자 정상 회담 개최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북핵 문제 등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이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대로 양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데 양국 고위급 외교 채널간에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백종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달 1일 미국을 방문,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교체널이 한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6월 개최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병세 청와대 안보수석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지난 1일 출국, 7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중이다.

/연합뉴스

우암학원 창립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중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e.ac.kr
상담홍보실 1588-0501 T.(061)360-5000

25세 이상 건성피부의
다양한 피부노화를
걱정한다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생명감

좋은 화장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당신을 위해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시간이 흐고 지나간 피부세포는 수분 보유력과 함께 생명력이 둔화되어, 다양한 노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뛰어난 항산화 작용과 피부 신진대사를 돋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오메가3

아이오페의 특징적 NLC (Nano Lipid Carrier)로 담긴 수퍼바이탈 크림, 피부의 부드럽게

길으며 느끼는 생강감각 피부를 하나하나, 깨끗한 아름다움으로 정돈해 드립니다.

